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컵

A cup full of good

버티나 노포드 (Bertina Norford)

크리스천 사이언스 센티넬 (Christian Science Sentinel)

2012. 2. 13

혹시 당신은, “나는 반이나 비어 있는 컵을 보는가, 아니면 반이나 차있는 컵을 보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는가? 반이 비어 있다고 보는 것은 비관적인 관점으로, 결핍을 보는 것이다. 반이 차 있다고 보는 것은 낙관적인 관점으로, 결핍 대신 공급의 증거를 보는 것이다.

나는 최근, 선과 악 양자를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이중적 생각을 멈추고 싶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컵에 대해 생각하였다. 이중적 생각 대신, 나의 잔, 모두의 잔(“인생의 운명”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을 전적으로, 철저히, 변함없이, 즐겁게 선으로 - 온통 좋은, 오직 좋은 것만으로 - 넘치도록 차있는 것으로 보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를 받쳐주는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 메리 베이커 에디의 교과서인 *과학과 건강* 안에 있다. 이는 사람은 “모든 올바른 아이디어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복합적인 아이디어...”(475 쪽)라고 묘사한다.

선이신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는 동안, 한 친숙한 성경이야기를 새로운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두 아들 외에 가진 것이 없는 듯 했던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기회가 주어진 이야기이다. (열왕기하 4 장 1~7 절) 예언자 엘리사는 이 과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들을 시켜 이웃들로부터 “빈 병들”을 빌려오게 하고 그녀가 가진 기름 한 단지로 병들을 채우도록 하였다. 그녀가 기름을 부어 넣었을 때, 기름은 계속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팔아 번 돈으로 그녀의 빚을 갚고 자신과 아들들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영감을 받은, 정확된 사고는 동물자기론의 이중론적 주장에 승복하지 않는다.

그 “빈 병들”은, 좋지 않은 건강, 책망, 실패한 관계들로 인한 과부 자신이나 이웃들의 공허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종류의 믿음들은 바울이 “육신적인 생각”(로마서 8 장 7 절)이라고 불렀고 또 에디 여사가 “동물자기론”이라고 칭한 악의 암시로 볼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생각들이 아니며 따라서 권능이나 실재성이 없다.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그 이야기에서 “기름”은 *과학과 건강*의 592 쪽에 정의된 대로 “정화(淨化); 자애; 친절; 기도; 거룩한 영감”일 수 있다. 영적인 의미에서, 아마도 그 과부는 그녀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과 거룩한 영감을 정성껏 “따라 부었고,” 이런 영적인 특성들이 그녀로 하여금 처음에는 빈 병들로 보였던 것들이 완전한 건강, 조화, 공급, 만족,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이미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 이미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오직 좋은 것들로만 차 있었다는 것을 - 깨닫게 하였을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가 내게 주는 교훈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물질(기름)의 계속적인 공급에 관하여라 기 보다는, 과부가 자신의 기름을 - 진실한 기도를 - 기꺼이 따라 붓고자 함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병들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음을 보도록 했다는 것을 분별함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상존하심에 대한 그침 없는 진실은, 기름의 풍성한 흐름이 궁극적으로 그 과부와 아들들의 빈곤을 변화시켰던 것과 같이, 오류와 결핍의 상황을 변화시킨다. 영감을 받은 정화된 생각은 동물자기론의 이중적 주장들에 승복하지 않고, 선에 대한 모든 그리고 유일한 현존을 주장한다.

**나는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필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모든 올바른 아이디어로 차 있는 것으로 볼 때, 슬픔, 고민, 결핍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내 이웃들에 대한 거짓 증언을 서지 않도록 더 잘 깨어 있다. 이중성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나는 내 생각을 살펴 악한 생각들을 밝혀내고 그것들을 버리며, 나의 정체성, 그리고 모든 사람의 정체성은, 잠복해 있는 악이라곤 전혀 없는, **혼이신 하나님**의 순수한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마태복음 26 장 41 절)고 권고하셨다. 선함으로 풍부한 **혼**은 오직 온전한 아이디어들만을 생산하고, **하나님**의 표현들은 서로를 고양하고 축복한다. 영적 치유가 이런 축복의 행위, 이중성에 대한 이런 지배를 실증한다.

내가 겪은 한 경험이 이 요점을 예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고통과 복부 안의 단단한 혹 그리고 식욕 상실을 포함한 심각한 신체적 문제에 당면하였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출근할 수 없었지만, 크리스천 사이언스 치유사(practitioner)의 격려와 기도, 그리고 *과학과 건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서 얻은 영감의 도움을 받았다. 나는 자주 그 책의 468 쪽에 있는 간단 명료한 “존재에 관한 과학적 설명”을 크게 소리 내어 읽고 깊이 궁구하였다. 나는 선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실재이시고 이 경우에는 질병이라는 형식을 가진 악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이중적 사고의 공격적인 주장에 맞서게 되었다.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고통 중에, “너는 꼭 필요하지는 않아.” 라는 것 같은 음울한 암시가 다가왔다. 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통해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마음 속으로 “아니야! 나는 필요한 존재야!”라고 되받았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암시는 끈질기게 반복되었고 “이유는?”이라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답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 다음 나는 비록 그 순간 내가 무용하다고 느꼈지만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나는 그래서 “나는 필요한 존재다 왜냐면 나는 사랑하고 있고 사랑은 선하기 때문이야.”라고 되받았다. 나는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필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 그 악한 암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고, 나는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악이 얼마간 내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치유사(practitioner)와 나는 기도를 계속하였다.

마음이신 하나님의 반영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아이디어들을 이미 포함하는 그리스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후, 또 하나의 다른 주목할 만한 돌파구가 왔다. 어느 날, 여러 시간의 공부와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하는 깊은 열망 끝에, 나는 한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창조를 따듯이 돌보시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조용하고도 심오한 감각을 느꼈다. 내 의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영향력인 그리스도가, 이중적 믿음을 오직 선만이 실재한다는 명백한 확신으로 대체했다. 치유사(practitioner)와 내가 이 영적 진실을 확인하는 것을 계속함에 따라 그 다음 몇 주에 걸쳐 고통과 다른 증상들이 감소하다가 사라졌다. 두 주 이상을 결근한 후, 나는 이 치유에 매우 감사하며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악의 실재성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건강이나 조화를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 즉 “정화”; 자애; 친절; 기도; 거룩한 영감을 그런 도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마음이신 하나님의 반영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아이디어들을 이미 포함하는 그리스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비관적도 낙관적도 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일, - 즉 **하나님**의 실재성에 대한 영적 증거를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 가득 차 있는 잔, **하나님**께서 주신 선으로 가득 찬 생명과 찬동할 수 있다.

버티나 노포드는 매사추세츠주 렉싱턴에서 살며 일한다.